

서울의 거주지 분리 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

- 학력자본 재생산의 차별화와 빗장도시 -

The Differentiation of Reproduction of Educational Capital and Gated City

최은영 (홍익대학교 강사, dise1@unitel.co.kr)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에 따라 자녀세대의 학력자본이 차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고학력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거주 비율이 높은 분리된 거주지에서 재생산되는 학력자본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4년제 대학 진학으로 제한해 지역별 학업 성취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세대의 학력수준에 비해 자녀세대의 학력수준은 대체로 높지만, 대학촌을 제외한 502개 서울시 행정동별 19~20세 인구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 격차는 64.5%(최고치 74.6%-최저치 10.1%)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동별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 격차는 부모 세대의 학력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학력수준이 높은 학부모가 많이 거주하는 동에서 자녀세대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세대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인구 비율이 높은 동과 자녀세대에서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이 높은 동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강남구와 광진구 사례 고등학교의 2003년 입시 및 대학 진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소재 4년제 대학 및 명문대(지방의대 포함) 입학에 있어 지역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강남구에서 재생산되는 학력자본의 질, 즉 동일 학력안에서의 질적 차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구 사례고와 광진구 사례고의 의대 진학에 있어서의 차를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구가 중간계급 이상의 계급지위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는 부와 빈곤의 지리적 집중에 의해 사회집단들 간의 경계가 확대·강화되고 특정 지역에서의 거주자체가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해 준다. 서울에서는 지역에 따라 학교 수준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에 있어서의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양호한 교육환경을 가진 사례지역인 강남구는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비가시적이지만 견고한 사회·경제적 장벽을 가진 빗장도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높은 주택 가격에 의한 타계급에 대한 배제를 통해 강남구의 양호한 교육환경은 장벽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전유되는 사회적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